

DAN 우리의 예술이 세계에서 빛을 발할 그날까지

장인주 | 무용이론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기업의 문화예술마케팅과 관련해 적극적인 민간외교활동을 펼치며 예술기업으로서 인식되기를 원하는 기업의 노력으로 한국을 소재로 한 공연이 펼쳐졌다. 어느 성과보다도 기업이 공동제작자로서 세계문화계의 주요 투자자로 이름을 굳힌 점이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더욱 많이 한국을 소재로 한 예술작품이 만들어져 우리의 문화예술이 세계무대 곳곳에서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본다.

독일 탄츠테아터를 대표하는 안무가 피나 바우쉬의 신작 <러프 컷(Rough Cut)>이 LG아트센터에서 6월 21일 시연회와 함께 22~26일 공연을 가졌다. 이 공연은 올 국내예술계 최고의 화제가 될 만큼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바우쉬'라는 유명안무가가 한국을 소재로 작품을 만들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LG그룹이 브랜드출범 10주년과 LG아트센터 개관 5주년을 맞아 10억 원의 거액을 제작비로 투자한 장기간에 걸친 프로젝트였기 때문이다.

LG그룹은 그동안 사회공헌활동에 주력해왔다. 올해 예산 136억 원을 지원한 LG연암문화재단을 비롯하여 다양한 기관을 통해 복지, 교육, 환경, 언론 분야에 걸쳐 널리 기여했다. 올해도 지난해보다 17% 늘어난 700억 원을 지원하는 등 해외 어느 기업에서도 그만큼의 수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사회 환원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매칭 그랜트(Matching Grant)'를 통해 임직원의 자발적인 기부 금액만큼 회사도 같은 액수를 기부하는데, 이는 국가가 지원하지 못하는 세세한 부문까지 포함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커져가는 기업의 문화예술마케팅 파워

외국의 예술가를 모셔오는데 10억 원을 투자한 것은 LG그룹이 최초는 아니다. 지난 5월에 경기도 문화의전당은 <스노우 쇼>로 유명한 러시아의 세계적 연출가 빅토르 크라메르에게 같은 액수를 지불하고 태권도 퍼포먼스 <더 문-은빛 달의 기사들>을 의뢰했다. 그러나 당시 작품에 대한 평은 낭만적이고 환상적인 장면 연출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는 호평도 있었지만, 세계무대로 나가기엔 아직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피나 바우쉬의 신작에 더욱 기대를 건 이유도 바로 이런 선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컨템퍼러리댄스의 새로운 조류를 주도하며 피나 바우쉬의 단골 신작무대인 파리

의 테아트르 드 라 빌에서 2006년 공연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작품의 예술적 가치분석에 앞서 한국을 세계에 알리게 될 것이라는 설렘이 넘쳐났다. 더욱이 문화기업의 이미지 구축을 위해 매슈 본의 '백조의 호수'를 기업광고로 도입해 성공을 거둔 LG그룹이었기에 투자 결과에 대한 기대를 더욱 증폭시켰다.

일본은 이미 오래 전부터 문화마케팅의 일환으로 세계적 무용가들을 초대해 자국을 소재로 한 작품을 만들어왔다. 모던 발레계의 거장 모리스 베자르, 이리 킬리안 등은 이미 일본의 정신과 민족적 정서를 작품 속에 담아내는 것은 물론 일본의 문화를 흡모하기까지 되었다. 일본이 기업의 차원을 넘어 국가가 직접 외국 유명 안무가에게 투자해 얻은 결실은 수치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이웃나라 일본의 예로 익히 잘 알려진 문화마케팅의 파급효과는 본격적인 문화예술 마케팅으로 전진하는 우리의 기업에게 더할 나위 없는 믿음을 주기에 충분했다. 그렇다면 과연 뚜껑을 열어본 바우쉬의 신작에 대한 평가는 어땠는가? 600여 명의 문화계와 재계 인사들이 모인 지난 6월 21일, 세계 초연에 앞선 시연회를 지켜보았다.

추상적으로 비춘 한국 정서

피나 바우쉬는 독일 태생으로 미국 유학 후 고국으로 돌아와 연극과 무용의 경계를 허물며 무용극을 대표하는 '탄츠테아터(Tanztheater)'라는 새로운 장르를 창조한 인물이다. 독일의 표현주의 무용에 뿌리를 둔 그녀의 안무는 20세기 후반을 대표하는 컨템퍼러리댄스의 주요한 갈래가 되었다. 30여 년 만에 소도시 부퍼탈을 유명하게 만들 정도로 위대한 바우쉬의 안무 노하우는 무엇일까. 바우쉬의 안무가 독창적인 이유는 창작방법이 매우 독특하기 때문이다. 무용수의 개성을 존중하고, 그들의 내면으로부터 솟아져 나오는 춤동작뿐 아니

라 사고까지 혼합시킨다. 이러한 안무방식은 바우쉬가 연작으로 만들어온 국가, 도시 연작 작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다.

안무는 바우쉬를 포함한 무용수들이 특정한 도시나 국가에 체류하면서부터 시작된다. 하루의 일정은 삼삼오오 짝을 지어 체류지의 문화와 관습을 관찰하고, 각자 본 것을 스튜디오로 돌아와 즉흥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채워진다. 노래나 춤이 될 수도 있고, 대사가 곁들여진 연기가 될 수도 있다. 조각조각 모인 장면들을 끊임 없는 토론과 수정을 거쳐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해 가는 안무방식은 단연코 독창적이다. 혹자는 이런 식으로 안무를 한다면 바우쉬가 안무가로서 맡은 역할이 과연 무엇인가 대한 의문이 들기도 한다. 일반적으로는 안무가가 고심해 만든 동작을 무용수들이 머리와 몸으로 익히는 것이 당연한 작업순서인데 거꾸로 무용수들이 뱉어 놓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안무가가 짜 맞추는 것을 '안무'라고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바우쉬는 분명 자신만의 확고한 인생관과 세계관을 바탕으로 무용수들에게 화두를 던지는 주체로서, 그들과 공동 작업을 펼친다. 그녀의 역할은 연극작품의 연출가에 비유될 만큼 중요하거나 안무가로서 작품의 중심위치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문은 부질없다.

한국을 소재로 한 국가, 도시 연작의 13번째 작품 <러프 컷>도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일본, 홍콩에 이어 세 번째 아시아국가로 선정된 한국의 풍경을 담기 위해 바우쉬와 무용단원들은 전국 곳곳을 훑어보고 다녔다. 부산, 통영, 곡성, 경주, 판문점, 경남 통영 해란마을, 안동 하회마을 그리고 미아리 점집과 사창가를 비롯해 압구정동, 야시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서울 곳곳까지 돌아보았다. 관광지가 아닌 한국인의 생활이 묻어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갔다. 그곳에서 전통 굿, 김장하는 모습, 떡 감는 풍경 등 한국인이 살아가는

진풍경을 그들의 눈에 담았다. 한편 태평무, 사물놀이, 풍악놀이 등을 직접 배웠고, 택견과 단전호흡, 한국어를 배우는 등 각자의 흥미대로 한국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다.

설렘과 기대 속에서 뚜껑을 열어본 한국 소재 신작은 이러한 관찰의 흡족한 결과였던가. 자연과 사람을 다루는 바우쉬의 세계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한국의 풍경과 한국인을 만날 수 있었는가. 한국의 깎아지른 산을 연상하게 하는 암벽을 타오르는 클라이머와 이를 향해 쏘아진 영상 속의 자연을 통해 우리의 풍광은 살아 있었다. 하지만 무용수들의 몸짓에서 한국적인 특질들을 구체적으로 찾아볼 수는 없었다. 바우쉬는 전체적인 작품 구성을 위해 플롯에 따른 매끈한 연결이 아니라 이미지를 두서 없이 나열하기 때문에 맥을 잃지 않고 하나의 호흡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것은 무리였다. 이런 결과는 신작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동안 바우쉬가 20년 동안 만들어온 연작 모두가 그렇다. 이러한 구성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비유와 풍자로 풀어낸 장면들에 대한 분석은 가능했다.

배추가 된 김치맨, '빨리빨리' 문화에 젖어있는 예식장풍경, 백화점 에스컬레이터를 가득 메운 쇼핑객과 그들에 동화된 무대디자이너 페터 팝스트의 모습, 굿의 소품인 종이꽃 태우기, 자랑스럽게 해병대 출신임을 외치는 남자들, 베온사인과 폭죽사이에서 사랑을 나누는 남녀 등 끊임없이 펼쳐지는 장면들은 진달래 언덕, 파도치는 바다, 백두산 천지연 등 한국의 자연과 오버랩되었다. 그 속에서 펼쳐진 움직임은 대체적으로 빠른 속도로 만들어졌다. 미끄러짐이 많고, 격렬하기도 했다. 풍광과 어우러진 우리의 감성을 바탕으로 풀어낸 동작들이었다.

바우쉬는 분명 한국적인 소재를 통해 인간의 본능을 말하고 있다. 바우쉬는 분명 한국적인 소재를 통해 인

간의 본능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이는 전 세계 어디서나 만나볼 수 있는 풍경일지도 모른다. 다국적 무용수들의 마음을 통해 걸러지고, 그들의 몸을 통해 표현된 풍경을 한국적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다. 더욱이 풍자적 표현은 논리에 어긋나기도 하고, 수박 겉핥기 식일 수밖에 없다. 홍콩을 소재로 한 <유리 청소부>가 홍콩인을 비하했다는 평을 들었던 것을 기억한다면 한국인의 모습은 그래도 호의적으로 표현되었다고 본다. 한 나라의 역사와 사회적 배경을 꿰뚫지 못한 상태에서 풍경만을 스케치한 작품은 한마디로 피상적이고, 추상적이었다.

<러프 컷>은 한국을 대표하는 첫 문화상품

비평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러프 컷>은 대가의 명성에 손색이 없는 수작이었다. 연작의 어느 작품보다도 화려한 의상이 작품의 수준을 한껏 올려놓았다. 스케일 큰 바우쉬 작품의 무대배경은 이번에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았다. 흰색의 암벽이 첫눈에는 단순해 보였지만, 위험을 무릅쓴 클라이머의 등반에서 관객을 압도했고, 흰 암벽이 스크린 역할을 해낼 때 또 한번 놀라게 했다. 한편 한국인의 정서를 담아낸 음악이 한 몫을 했다. 종이꽃을 불태울 때 흘러나오는 김민기의 '가을 편지'는 가사내용과 연관성 없이 맺어진 장면이라는 사전지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경음악으로서 훌륭한 조화를 이루었다. 또한 이어부밴드의 전자음악에 녹아있는 전통음악가락은 때로는 흥겹게, 때로는 한스럽게 열정적 춤과 어우러졌다.

<러프 컷>은 영화에서 말하는 미완성분을 뜻하지만, 이는 점차 수정보완이 가능한 첫 번째 버전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정서 중 거친 면을 지적한 표현이라 하겠다. 그리 좋은 의미의 제목이라고는 볼 수 없다. 바우쉬의 작품이 풍자와 희화적이기 때문에 한국적 사상까지 적

바우쉬는 분명 한국적인 소재를 통해 인간의 본능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전 세계 어디서나 만나볼 수 있는 풍경일지도 모른다. 다국적 무용수들의 마음을 통해 걸러지고, 그들의 몸을 통해 표현된 풍경을 한국적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다.



왼쪽 · 독일의 세계적인 안무가 피나 바우쉬

오른쪽 · 피나 바우쉬의 <러프 컷> 공연 장면



관적이며, 패러디적인 성향이 짙다. 오랜 역사 속에서 왜곡된 특정한 나라의 본질적 이미지를 찾고, 왜곡된 관점을 비판하려는 시도는 바우쉬의 작품에는 결여되어 있다. 바우쉬의 안무관이 무용수들의 눈에 비친 타민족에 대한 풍자에 집중되어 있다면 브누슈킨의 연출관은 피분석 민족의 입장에서 볼 때 부당하게 다루어진 역사를 증언하기에 손색이 없다.

절하게 담아내기엔 부족함이 없지 않지만 '우리의 정서가 배제되어 아쉽다'와 '한국의 이미지를 만나 반갑다'는 의견으로 나뉘는 비평은 기대치의 차이가 가져온 상대적 평가점수에 불과하다. 거액의 투자가 단지 조롱의 대상이 되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속상해야 할 일이지만 바우쉬는 분명 일면에 한국인을 향한 애정 담긴 마음도 보여주었다.

바우쉬 연작의 마지막 작품을 대하며 자연스럽게 프랑스 태양극단의 작업철학이 떠올랐다. 연출가 아리안 브누슈킨을 중심으로 한 다문화주의를 향한 노력은 바우쉬 무용단이 했던 타문화 읽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2001년 내한공연을 가진 바 있는 <제방의 북소리>에서 잘 드러나듯 일본의 분라쿠 형식과 중국의 경극, 한국의 사물놀이와 전통의상을 혼합하여 동양적 복합표현 형태를 보여주었다. 한국의 문화를 읽기 위해 사물놀이 팀을 6개월 간 그들의 본거지 카르투슈리에 초청해 함께 생활하며, 적극적 문화수용 태도를 보였다. 극히 개인적인 의견인지는 모르겠으나 상식 외의 행동, 관습에서 벗어난 사고를 반영한 이미지를 열거하는 바우쉬의 작품은 태양극단의 다문화주의와 비교한다면 극히 주

이렇듯 어긋난 시각으로 바라본 한편의 풍경화가 과연 한국을 대표하는 첫 문화상품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가? 그렇다. 분명 세계 관객들의 시선을 한국으로 집중시키기 위한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다. 총수가 직접 바우쉬를 만나는 등 적극적인 민간외교활동을 펼치며 '예술기업 LG'로서 인식되기를 소원한 한 기업의 투자가 이룬 브랜드 시대에 적합한 '한국브랜드'의 탄생은 기쁜 일이다. 780여 회 기획공연, 590여 회 대관 공연으로 평균 73%의 객석 점유율을 보인 LG아트센터가 개관 5년 만에 백만 관객 돌파라는 성공적 운영을 보였지만, 그 어느 성과보다도 이번 <러프 컷>의 공동 제작자로서 세계문화계의 주요 투자자로 이름을 굳힌 점이 의미가 있다. 월드컵 이후 한류열풍과 함께 세계 속으로 뛰어든 한국의 이미지는 분명 바우쉬의 작품이 가세하면서 더욱 빛날 것이다. 피상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세기의 거장이 다룬 한국은 그 예술성을 논하기에 앞서 분명 최고의 상품가치를 지니고 있다. 앞으로 더욱 많이 한국을 소재로 한 예술작품이 만들어져 우리의 문화예술이 세계무대 곳곳에서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날을 고대한다. ✨